

# “기업 업무 초자동화 시대 열겠다” GPU 중심 AI클라우드 조성 집중

**삼성SDS, 리얼서밋2024 개최**  
클라우드 플랫폼 최신 AI 기술 적용  
퍼스널 에이전트, 맞춤형 업무 지원  
텔·엔비디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업 업무의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 시대를 열겠다.”

황성우SDS 사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연례 정보기술(IT) 행사 ‘리얼서밋2024’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은 초(超)자동화를 뜻한다.

삼성SDS는 지난해 생성형 AI 플랫폼 ‘팩브리릭스(FabriX)’,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선보였다. 기업 업무를 혁신적으로 자동화하는 팩브리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은 현재 100여 개 기업 고객이 도입했고, 15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황 사장은 “생성형 AI를 통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자연어 명령을 듣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GPU(그래픽처리장치) 중심 AI(인공지능) 클라우드로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는 AI 사업 전략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에이전트화 ▲GPU 기반의 AI 클라우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선정하고 수행 중이다.

황 사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지난 1년 간 코파일럿 다음 단계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코파일럿의 신기능인 ‘퍼스널 에이전트(Personal Agent)’를 소개했다. 퍼스널 에이전트는 개인별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정리, 다국어 실시간 통역, 음성 기반 업무 처리 등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퍼스널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삼성S



DS는 지난해 임직원들의 생성형 AI 적용 아이디어 1만4417건을 발굴했다. 여기서 7개 메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세웠고 4000개 이상 하위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했다. 현재 생성형 AI 업무로 업무의 13% 가량이 자동화했으며 내년 중 25%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은 ‘GPU 중심 AI 클라우드’로 개발할 예정이다. AIOS(LLM Agent Operating System), LUI(Language User Interface)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의 여정(Journey)을 이끌 계획이다. AIOS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내장해 자연어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OS이며 LUI는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기조연설에는 텔테크놀로지스 마이클 텔 회장, 엔비디아 제리 첸 제조·산업 부문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 마이크로소프트 마크 소우자 아시아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워크데이 조 윌슨 글로벌 CTO 등 삼성SDS와 협력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경영진도 참여했다.

또 삼성생명 흥선기 디지털 혁신실장(부사장)과 파라다이스그룹 정봉화 총괄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상무)

가 삼성SDS와 함께 생성형 AI를 이용해 어떻게 업무를 혁신했는지 발표했다. 마이클 텔 텔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SDS와 텔 테크놀로지스가 수십 년 동안 파트너로서 함께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삼성SDS와 혁신의 여정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제리 첸 엔비디아 총괄은 GPU 중심의 AI 클라우드를 위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엔비디아 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소우자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삼성SD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SDS는 팩브리릭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기반으로도 제공할 글로벌 고객들도 팩브리릭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27개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클라우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등 삼성SDS의 핵심 역량과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베트남 CMC그룹 브리티 코파일럿 도입 ▲웅진 렌탈 서비스 팩브리릭스 적용 ▲대상웰라이프 브리티 오토메이션 적용 등 생성형 AI 적용 사례 ▲LIG 넥스원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사례 등이 소개됐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U+ “초개인화된 AIPTV 시장 선도”

자막 생성부터 음성 챗봇까지 지원

LG유플러스가 초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TV(AI + IPTV)’ 시대를 연다. 인터넷TV(IPTV)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익시(ixi)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승 LG유플러스 휴니버스 그룹장(상무)은 3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보다 나를 잘 아는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AIPTV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간담회에서 콘텐츠 탐색부터 시청, 이후의 소통까지 시청 경험 여정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드는 U+tv의 신규 기능을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먼저 IPTV 특화 AI 에이전트인 ‘미디어 에이전트’를 IPTV에 적용해 초개인화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 에이전트는 고객의 모든 TV 시청 여정에 적용되는 ‘지능형 시청 도우미’이다. ▲초개인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큐레이션’ ▲자막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글자 겹침이 있



LG유플러스는 3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 서비스 ‘U+tv’에 익시(ixi) 기반의 AI 미디어 에이전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면 자동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AI자막’ ▲AI기반 24시간 고객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익시 음성챗봇’ 등 3가지 신규 AI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AI 큐레이션은 고객별 취향에 맞는 콘텐츠와 고객별 시청 패턴에 적합한 합리적인 월 정액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안해주는 기능이다.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추천’ 색선에서만 콘텐츠를 제안했던 기존 개인화 기능과 달리 AI 큐레이션은 고객이 콘텐츠를 검색해도 즉시 유사 콘텐츠를 제안하는 등 고객 행동에 실시간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방송도 한글 자막을 켜고 시청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AI자막’ 기능도 탑재했다. /구남영 기자 koongia\_tea@

## 800Gbps급 대용량 유선망 최초 도입

SKT-SKB 상용망 시험개통 완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최초로 800Gbps(초당 기가비트)급 대용량 유선망을 차세대 백본망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선제적 준비에 나선다. SK텔레콤(SKT)과 SK브로드밴드는 최근 800Gbps급 유선망을 서울-부산 구간 상용망에서 시험 개통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SKT는 추가로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인천 사옥에 1.2Tbps 초대용량 유선망 개통 시험도 마쳤다.

양사는 그동안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대용량 유선망 도입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800Gbps급 전국망 체계를 확보, 고도화된 백본망 전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T와 SK브로드밴드 고객들이 국내 전 지



SK텔레콤 직원들이 백본망에 도입된 800Gbps급 유선망을 정비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끊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층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대용량 유선망 도입에는 차세대 광전송 기술이 활용됐다. SKT는 800Gbps 대용량의 초장거리 1200km 전송 시험을 선제적으로 마친 데 이어, 1.2Tbps 초대용량을 중장거리 전송 시험을 상용망에 시범 도입하여, 광전송 장비의 핵심 기능인 ‘장거리 전송’과 ‘대용량 전송’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구남영 기자

## 네이버웹툰, 지난해 경제 파급효과 4.3조

韓 수출 2.4조, 전체 55.3% 차지  
2019~2022년 해외 연평균 122% 성장

네이버웹툰이 지난해 한국 경제에 약 4조352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한국 웹툰 수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4062억 원으로 전체 55.3%를 차지했다.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진출 10주년을 맞아 ‘2023년 한국 창작 생태계 기여 효과’ 연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연구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재현 충남대 교수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결과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웹툰이 수출한 한국 웹툰의 해외 유료 콘텐츠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2%를 기록했다. 해당 작품들은 전체 조회수의 48.3%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연구팀은 플랫폼과 콘텐츠의 글로벌 동반 진출이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 독자와 콘텐츠를 활발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한국 창작자 효용도 분석했다. 해외 플랫폼이 확장할수록 국내에 더 많은 아마추어 작가가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이는 정식 연재 작품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 웹툰을 여러 언어로 수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 순위의 하락 폭이 줄어 작품 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발생했다.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삼 작가는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연재가

가능하고 번역과 해외 홍보, 프로모션도 지원받는다”며 “제 작품은 국내 수익의 1/3 정도가 해외에서 추가로 나오는데 매출이 안정적인 덕분에 인건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웹툰작가들도 네이버웹툰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네이버웹툰 정식 연재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93%)의 작가들은 “네이버웹툰이 해외 플랫폼 구축과 번역, 마케팅 등 웹툰의 해외 진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81%는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진출이 웹툰의 저변 확대와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했다”고 답했다.

/이혜민 기자 hyem@